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헌금 전 이야기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긍휼을 실천하기: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각 교회의 예배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오늘은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며, 긍휼을 실천하고 삶의 폭풍에 휩싸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함께 구호위원회를 위한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호위원회는 우리를 대신해 재난에 대응하는 교단 산하 기관입니다.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이 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자원봉사자 훈련 비용부터 사무실의 전등을 켜는 일에 이르기까지,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구호위원회의 비용을 지원하며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게 합니다. 우리의 후원금은 구호위원회가 다년간 축적한 지식으로 구축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전문적 리더십, 숙련된 봉사자들 덕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구호위원회를 후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튀르키예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헌금 등을 통한 우리의 후원은 생존자들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구호주일 헌금을 통해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세요.

헌금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을 맞아 열린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절망에 갇힌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구호위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한 지원으로 바꾸어 주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예물 위에 복 내리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